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 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보이는 그 꺼먼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뭐지요?”  “예, 예, 저어…….”  “여긴 은행이오,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오?”  “저금을 조금두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  |  |  | | --- | --- | --- | |  |  |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 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백 원짜리 지폐 다섯 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 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 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 |  |  | | **[A]** | | |  |  | |  |  |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이백 원 혹은 삼백 원 또 어떤 날은 오백 원, 그의 통장  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  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엘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게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  으루……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기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의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갓다한다. 장손이장가갓다. 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가려들고왔더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낫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그저 걸어 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처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이범선, ｢표구된 휴지｣- |